

2008. 2. 28.

국가청렴위원회 윤리경영팀

기업윤리 브리프스 *Business Ethics Briefs*

< 차례 >

01 유엔글로벌콤팩트 실천사례 - 반부패

16 국내 기업의 윤리경영 사례
대한석탄공사

22 국내 윤리경영 동향
기업관련
정부관련

☞ 이 자료는 국가청렴위원회 디지털기업윤리센터(<http://ethics.kicac.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링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은 che24@kicac.go.kr 또는 02-2126-032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유엔글로벌콤팩트 실천 사례 - 반부패

- ☞ 이 글은 UN Global Compact 사무국이 2007년 6월 발간한 『*Human Rights , Labour, Environment, Anti Corruption, Partnerships for Development : An Inspirational guide to implementing the Global Compact*』 중 ‘Anti-Corruption’ 부분을 번역, 정리한 것임

【반부패】

원칙10 :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 2003년, 유엔반부패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이 채택됨에 따라 중요하고도 전 세계적인 부패 척결 장치가 마련되었음
 - 동 협약은 Global Compact의 열 번째 원칙인 “반부패 원칙”을 위해 마련된 가장 근본적인 법적 장치임
 - Global Compact “반부패 원칙”은 2004년 6월에 채택되었음
 - Global Compact 참여 단체들은 뇌물과 부당취득 등 모든 형태의 부패 행위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부패 방지를 위한 방침을 수립하고, 구체적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서약하고 있음
- 기업들은 정부, 유엔 기구, 시민사회 등과 협력하여 더욱 투명하고 부패가 존재하지 않는 글로벌 경제를 건설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음
 - 부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며, 특히 빈곤지역에는 더 큰 악영향을 끼침

- 부패는 사회 구조(fabric of society) 자체를 서서히 잠식하는 부정적 존재이며, 부패가 발생하면 자원이 부적절한 곳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개발에 이용되는 서비스와 자재의 품질이 급격히 저하됨
- 부패는 그동안 환경을 파괴하고, 노동 기준을 손상시켰으며, 기본적인 인권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만들었음

□ 특히 민간부문에 대한 부패의 영향력은 지대함

- 부패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왜(why)”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음
- 먼저, 부패는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을 왜곡하며, 심각한 법적 위험을 가져다주고, 기업의 평판을 떨어뜨림
- 또한 부패는 기업의 자산이 잘못 사용되도록 함
-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기업이 활동하는 경우, 부패는 10퍼센트 이상의 재정적 부담을 기업에 가중시키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기업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 및 환경 발전에도 이해관계(vested interest)가 있음
- 따라서, 기업들은 부패 척결을 위한 성공 전략 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Global Compact 등의 자발적 이니셔티브는 정부의 부족한 역할을 보완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변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임

□ 일부 기업들, 특히 부패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반부패 원칙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함

- 기업 관행 전반에 걸쳐 뇌물 공여가 만연해 있는 지역에서 경쟁 기업 전체가 뇌물을 공여하고 있는 경우, Global Compact 반부패 원칙의 이행을 약속한 기업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 부패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기업은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가? 공개할 경우, 기업의 평판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가?
- 정치적 기부는 어떠한 경우에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되는가?
- 기업은, 공급업자 또는 대리인을 통한 간접적 방식의 부패 행위에도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 급행료(facilitation payments)가 허용되는 경우, 이를 통해 뇌물 공여를 묵인하는 기업 문화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례1) 국제적 기준을 지역에서 실천하기

- Novozymes은 생명공학 분야의 세계적 선도업체로 주로 효소와 미생물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
 - 100가지 이상의 효소 및 미생물과 700 종류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Novozymes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 기업임

가. 도전 과제(The Challenge)

- Global Compact 반부패 원칙을 이행함에 있어 다국적기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과제는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 즉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는 것(international consistency)과 현지의 문화적 전통을 인정하고 그에 적응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임

□ Novozymes은, 체계적이고 가치를 중요시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왔는데,

○ 이러한 방식을 통해 Novozymes은 반부패 원칙 이행 사실을 공식화할 수 있었으며, 부패와 관련된 위험 및 기회에 대처할 수 있었음

나. 실천 사례(The Actions)

□ Novozymes이 취한 부패방지 방안(corporate anti-corruption measures)에는 단순한 법규 준수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부패방지 방안은 “품질관리 기준(corporate quality management standard)” 안에 명시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반부패 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반부패 원칙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종업원들은 동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Novozymes의 반부패 원칙은 모두 여섯 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Novozymes이 중시하는 책임성, 신뢰성, 개방성 및 정직성이라는 가치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Novozymes의 반부패 원칙

- 뇌물(Bribes) : 우리는 뇌물을 공여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 급행료(Facilitation payments) : 우리는 신속한 공공서비스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급행료를 지급한다.
-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 우리는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을 지원하지 않는다.
- 보호금(Protection money) : 우리는 범죄자들에게 보호를 받기 위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선물(Gifts) : 우리는 과도한 선물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 정치 및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Political and charitable contributions)
: 우리는 정당에 자금을 제공하지 않지만, 자선단체에는 기부한다.
- 동 원칙들은, Novozymes의 각 나라별 지사들이 현지의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고 그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현지 적응 규칙(local adaptation rules)에 따라 더욱 명확히 정의될 수 있음
- o 각 지사들이 동 원칙들을 변경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할 수는 있음(예 : 어떤 선물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명확히 정의하는 일)
- 또한 Novozymes의 품질관리 기준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반부패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음
- o 종업원들은 동 관리시스템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Novozymes의 원칙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음
 - o 또한 동 시스템은 종업원들에게 급행료와 과도한 선물이 오고 간 사실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Novozymes은 새로운 보고 계통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부패 관리시스템의 규칙, 책임 관계, 절차 등을 기존의 관리시스템 안에 통합하였음
- o 따라서 청렴성위원회(CBI : Committee on Business Integrity)만이 새롭게 만들어졌음
 - 동 위원회는 영업 마케팅, 재무 및 법무 부서의 부사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Novozymes의 반부패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책임을 맡고 있음

다. 구체적 이점(The Benefits)

□ Novozymes은 반부패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가치를 중시하는 접근방식을 취함으로써, Global Compact 반부패 원칙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할 수 있었으며, 반부패 관련 위험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기회를 잘 포착하여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음

○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음

- 고객의 기대에 부응
- 기업의 평판 제고 및 철저한 위험 관리
- 윤리적 투자펀드(ethical investment funds)의 요구 조건 충족
- 감사자(auditors)에게 증거 서류 제공
- 향후 입법(future legislation)에 대비
- 법규범 및 규제 준수

사례2) 규범 제정부터 시작하기

□ Total은 세계적인 석유 및 가스 회사로 전 세계 다섯 개 대륙 130개 국가에 9만 5,000명의 종업원들이 있음

- Total은 석유 및 가스의 탐사, 개발, 생산 그리고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정제, 판매, 교역, 운반까지 석유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
- 또한 산업재 시장과 소비재 시장에 기초 및 정밀 화학제품(base and specialty chemicals)을 생산·공급하고 있음

가. 도전 과제

- 국제적으로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고, 다양한 문화와 법적 체계(legal frameworks)에 적응해야 하며, 거버넌스가 취약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친 사업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하는 다국적기업에게는 부패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따라서 Total과 같은 다국적기업이 모든 활동 지역에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 및 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나. 실천 사례

- 반부패 방침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립된 방침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임
 - 효과적인 반부패 방침에는 행동강령을 수립하고 이를 여러 다른 현지 상황에 맞추어 적용하는 노력도 포함되어 있음
 - Total은 반부패에 대해 “인지-감시-지원-확인(awareness - monitoring - support - verification)”이라는 실용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음
 - 특히 윤리위원회(Ethics Committee)의 검토를 거친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인식 제고와 회계 감사에 의해 뒷받침되는 반부패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이를 기업 경영에 통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 Total의 행동강령에는 자사의 모든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본 가치들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경영 원칙 및 준수 사항(commitments) 등도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음
 - 행동강령 제정 후 총 42만 9,000부가 16개 언어로 발행되었음

- o Total의 모든 부서 및 자회사들은 기본적인 경영원칙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현지 여건이나 사업 환경에 필요한 특정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자신들만의 고유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였음
- 윤리위원회는 Total의 다른 조직들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CEO에게 직접 보고함
- o 동 위원회는 Total의 행동강령에 포함된 가치와 원칙을 장려하고, 윤리 세미나를 통해 종업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있음
- ※ 윤리 세미나는 현재까지 20개국에서 38차례 개최되었으며, 2천 200명 이상의 관리자들이 참석하였음
- o 동 위원회는 또한 윤리적 문제에 직면한 모든 종업원들에게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윤리 문제에 대한 권고사항을 경영진에게 제시하고 있음
- 부패 문제로 고민하고 있거나 특정 상황의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해 고민하는 종업원들은 행동강령에 따라 자신의 상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음
- o 관리자들은 윤리 세미나를 통해 종업원들의 고민에 대해 조언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o 또한 종업원들은 윤리위원회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음
- 이 경우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므로 종업원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조언을 구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음
- Total은 전 세계 지사에서 행동강령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모범 사례와 잠재적 위반 사례를 찾아내기 위해 윤리 감사(ethical audit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외부 감사인(Independent auditors)들은 40여 개 지사에서 84개의 핵심 프로세스를 평가하는데, 그 중 20개 정도는 부패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
- 감사를 통해 드러난 모든 부정행위(irregularities)는 윤리위원회와 관련 부서로 보고됨
- 동 프로세스에는 수행된 시정 조치(corrective measures)에 대한 사후 점검(follow-up) 및 모니터링이 포함됨
- 적절한 모범 사례는 전용 웹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른 부서와 공유되고 있음

다. 구체적 이점

- 전 세계적 규모의 강력한 반부패 프로그램이 고위 경영진에 의해 추진된다면, 기업이 부패 척결과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내부에 확실하게 알릴 수 있음
 - 반부패와 관련된 내부 체계가, 분명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경우, 종업원들은 자신감을 얻고 동기부여가 되며, 갈등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됨
 - 효과적인 반부패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서는 종업원의 지지가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 그러나 교육 훈련에서부터 내부신고제도(whistle blowing), 위험 분석에서 현장 실사(field operations due diligence)까지, 반부패 프로그램의 모든 구성 단계가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Total은, 효과적이며 구조가 잘 갖추어진 접근방식을 통해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반부패 정책을 더욱 용이하게 구상, 통합,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며, 또한 종업원들이 행동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명확한 준거 기준(reference code)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
- 단순히 반부패 원칙을 선언하는 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종업원 개개인이 구체적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Total의 정책에도 유연성이 생겨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함

사례3) 반부패 원칙을 계약 사항에 포함시키기

- Statoil은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스칸디나비아 최대의 에너지 기업으로, 세계 최대의 원유 판매 기업 중 하나이며, 주로 유럽 대륙에 천연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9개 국가에서 2천여 개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음

가. 도전 과제

- 사회가 불안정하고 거버넌스 체계가 취약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는 국제적 수준의 윤리 기준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대부분의 수익을 천연자원으로부터 얻는 국가는 부패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Statoil에게는 모든 활동 지역에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문제를 다룰 때 동일한 가치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
-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원칙들의 체계화 정도가 다르거나 법적 강제력(legal enforcement)이 부족한 실정임

나. 실천 사례

- Statoil은 1992년에 처음으로 나이지리아에 진출하였으며, 그 후 나이지리아에서 여러 라이선스(licences)에 대해 운영권(operatorship)과 참여권(participation)을 획득하는 데 성공하였음
 - Statoil은 2005년 실시된 광구(block) 분양에서 운영권자인 Petrobras, 현지 광물 운반사(content vehicle company)인 ASK와 함께 45퍼센트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2006년 2월에는 나이지리아 정부와 생산 공유 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였음
 - 그 후 Statoil과 Petrobras, ASK 3사는 “공동운영계약(JOA : Joint Operating Agreement)”의 체결에 대해 논의하였음
 - 공동운영계약은 오일 및 가스 업계의 표준으로, 라이선스 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제하고, 사업 파트너 및 정부 기관에 대한 행동 기준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함
- 공동운영계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Statoil은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을 준수할 경우 행동 기준과 거버넌스 기준을 규제하고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공동운영계약의 당사자 모두가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하였음
 - 이러한 제안은 광구 소유자(block owners)와 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나 또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계약자 및 사업 파트너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었음
 - Petrobras와 ASK 역시 동 제안을 지지함에 따라 공동운영계약은 2006년 8월 3사에 의해 공식 체결되었음
 - 이는 Global Compact 원칙이 다국적기업 간에 체결되는 공동운영계약 또는 기타 석유 가스 계약에 포함된 최초의 사례였음

다. 구체적 이점

- 부패는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를 낳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며, 자원이 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자원의 저주 : 자원이 풍부한 국가일수록 경제성장이 둔해지는 현상

- 다국적기업은 물론 내수기업도 윤리적 기업 관행을 수용할 경우 폭넓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
-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을 이행하기로 한 약속은 일회성의 특별 프로그램보다 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것임
 - 이와 같은 “계약 방식(agreement approach)”은 더 많은 기업들이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서 부패방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또한 내수기업들이 국제적 기업 관행을 더욱 널리 공유하도록 하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도 있음
- Global Compact 10대 원칙을 공동운영계약에 포함시킬 경우, 기업들은 국제적 경영 기준(business standards)에 따라 협력하는 방안을 모든 기업과 공유할 수 있음
 - 공동운영계약에서 유전 업계의 일반적 관행 및 표준과 10대 원칙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사업 파트너 및 사회 전체에 혜택을 가져다 주는 틀 안에서 기업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이를 통해 사회는 기업이 어떠한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며, 반대로 기업은 사회가 기업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될 것임

사례4) 부패 척결을 위한 공동 대응

- “청렴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기업 협약(Business Pact for Integrity and Against Corruption)”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브라질 사회의 부패를 감소시키기 위해 발의된 협약임
 - 동 협약은 기업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에토스연구소(Ethos Institute of Business and Social Responsibility)와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경제포럼(WEF), Global Compact 브라질위원회(Global Compact Brazilian Committee) 등이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6년 6월 22일에 공식 발효되었음

가. 도전 과제

- 지난 수십 년간 브라질 사회는 비약적인 경제 및 사회 발전을 구가해왔으나, 그와 동시에 부패의 파괴적 영향에 시달려 왔음
 - 1990년대 초반 이후, 브라질 각지에서는 다양한 부패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 그 결과 의회 의원 및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권한을 박탈당하고 형사상 제재를 받았으며, 공공기관과 사법부 관료들 역시 부패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았음
 - 언론은 계속해서 행정, 입법, 사법부 관료들은 물론 공기업과 국영기업의 비리에 대해서도 보도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신뢰가 사라질 것이며, 기업 활동 또한 비능률적이고 불확실해질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브라질 기업인들은 2005년 12월 상파울루의 증권거래소에 모여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음

- 이후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에토스연구소(Ethos Institute of Business and Social Responsibility) 등에 의해 “청렴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기업 협약”으로 발전하였음

나. 실천 사례

□ “청렴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기업 협약”의 목표는 기업이 자율 규제를 통해 반부패 관행을 경영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이 되는 것임

- 동 협약은 에토스 연구소의 사회적 책임 원칙(Letter of Principles of Social Responsibility), 유엔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Global Compact의 반부패 원칙,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그리고 2005년 상파울루와 리우데자이네루에서 개최된 부패 관련 세미나의 토론 내용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동 협약에 가입한 기업들은 다음의 여섯 가지 사항을 서약함

1. 부패와 관련한 법규범 및 규제 사항을 내부에 알린다.
2. 기업 활동에 적합한 지침을 공개하고 제공한다.
3. 어떠한 형태의 뇌물도 허용하지 않는다.
4. 정치 캠페인에 대한 자금 기부를 규제한다.
5.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공표한다.
6. 부패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조사한다.

- 이들은 기업의 거래, 특히 선거 캠페인과 관련된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동 협약이 진정한 국가적 차원의 이니셔티브(national initiative)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지역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는데, 그 결과 브라질의 여러 주에 위치한 지역 기업들의 협조로 동 협약이 발의될 수 있었음
- 협약에 가입한 기업들은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해 “깨끗한 기업(Clean Company)”이라는 이름으로 웹사이트(www.empresalimpa.org.br)를 구축하였음
 - 동 사이트는 뉴스와 자료를 통해 부패가 어떻게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지를 보여주고자 마련된 것이며, 협약에 서명한 기업들은 부패 척결을 위해 수행한 구체적 행동 사례들을 웹사이트에 올려 공유하고 있음

다. 구체적 이점

- 부패는 불평등이 완화되지 못하도록 하며,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을 저해함
 - 실제 동 협약의 홍보 캠페인 표어로도 “국가가 부패를 종식시키지 않으면, 부패가 국가를 종식시킨다(Either Brazil destroys corruption or corruption destroys Brazil)”는 문구가 사용되고 있음
- 경제가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및 정부 관료들이 윤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함
 - 사전예방적인 방식으로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은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될 것임
- 2007년 4월 말 현재 350여 개 기업과 75개 단체가 동 협약에 가입하였음
 - 브라질 국민들은, 기업들이 동 협약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브라질이 변화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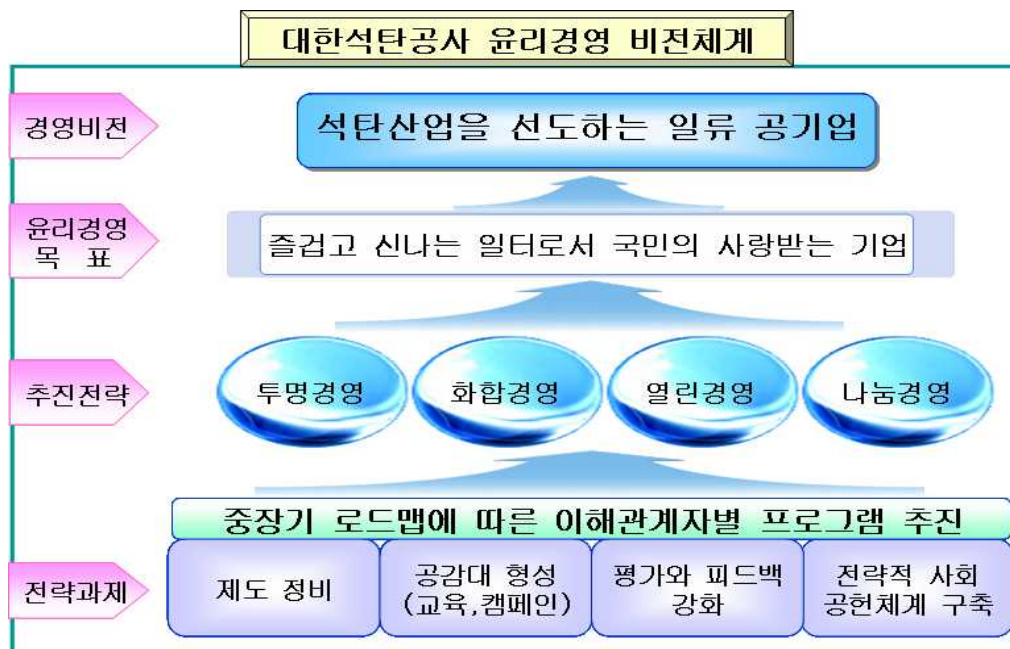
II. 국내 기업의 윤리경영 사례

□ 대한석탄공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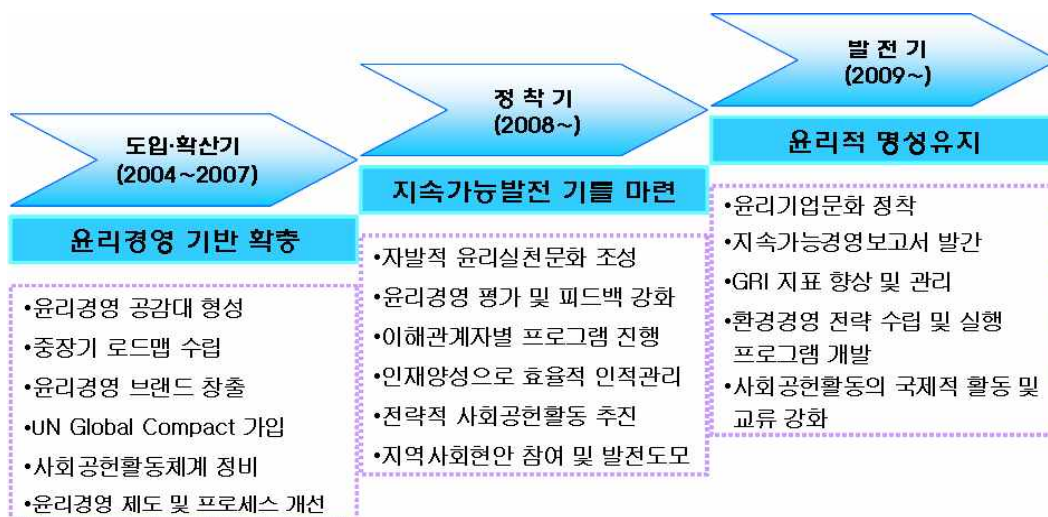
* 2008.2.13. '대한석탄공사'에서 국가청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임

《윤리경영 비전과 로드맵》

■ 비전체계도



■ 중장기 실행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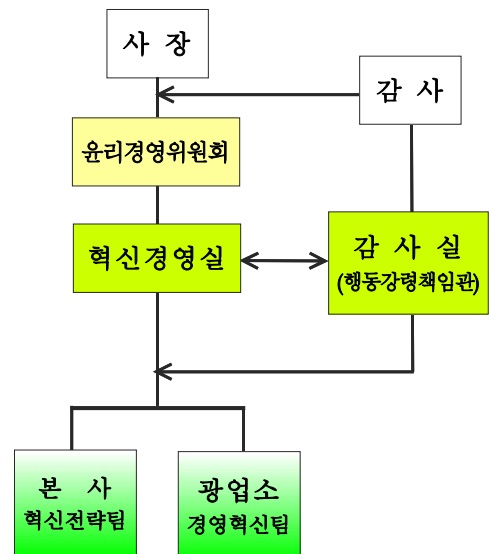


《윤리 기준》

- 윤리강령 제정('03.9) 및 개정('04.11)
 - 이해관계자별 실천윤리 제시로 올바른 의사결정의 판단기준 제공
- 행동강령 제정('03.9) 및 개정('06.6)
 - 임직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통제사항 제시
- 윤리헌장 제정('04.9)
 - 윤리경영에 대한 공사 이념과 경영방침 천명
- 내부공익신고 처리지침 제정('04.11) 및 개정('05.10)
-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정('07.7)
- UN Global Compact 가입('07.8)으로 인권·노동기준·환경·반부패 원칙 준수

《윤리경영 추진 조직》

구 분	기 능
윤리경영 위원회	▪ 윤리경영 추진 기본방향 설정 ▪ 주요 사업 심의 및 의결
감사실	▪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부패방지 교육 및 내부 감사활동 ▪ 내부공익신고제도 운영
혁신전략팀 (본 사)	▪ 공사 윤리경영 사업 주관 ▪ 윤리경영 대외활동 및 홍보 ▪ 지속가능경영체제 총괄
경영혁신팀 (광업소)	▪ 광업소 윤리경영 프로그램 실행 ▪ 광업소 사회공헌활동 지원



《윤리경영 추진 실적》

- CEO의 윤리경영 실천
 -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 서약 지시('05. 6, '07. 8)
 - 공기업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등 대외 활동 적극 참여
 - UN Global Compact 가입('07.8)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로 도약 천명
 - 태안기름유출사고 지원·연탄나눔운동 등 자원봉사 활동 솔선수범
 - 강사초청 반부패 특강 참석 및 훈시, 사이버교육과정 동참
 - CEO와의 대화센터 개설, 51개 연탄공사 순회방문('07.11) 등 이해관계자별 의견 적극 수렴

■ 투명성 확립을 위한 시스템 및 제도 정비

- 임원 직무청렴계약제 시행
 - 청렴한 직무수행의 의무화 및 솔선수범의 당위성 제시
- 청렴계약제 실시
 - 계약당사자간 청렴이행각서 맞교환
 - 금품·향응 제공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강화
- 공정한 인사 행정
 - 사내직위공모제 시행
 - 전략개발실 경영전략팀장 시범 공모('03.7)
 - 사내직위공모제 지침 제정('05.7)
 - 기대효과 : 능력 있는 직원 선발로 직무능률 향상
 - 열린 채용 : 신입사원 채용시 학력·연령·성별 제한 폐지
 - 다면평가제 실시
- 업무 프로세스의 전산화 및 경영정보시스템 통합
 - 예산분야 : 자체개발 ERP 운영('06.12),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연말손익예측 프로그램 등 예산관리프로그램 통합
 - 재무분야 : 자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재무위험관리시스템 구축, 부동산임대관리 전산화
 - 생산분야 : 생산 현황의 즉각 파악을 위한 석탄생산실적의 온라인화
 - 감사분야 : 일상감사의 전산화 및 감사결과의 전 직원 공유
- 클린카드제도 시행 및 보완('05.1)
 - 법인카드를 가요주점 등 유흥업소 사용이 금지된 클린카드로 전환
 - 법인카드 사용 실태의 정기적 점검 실시 및 일상감사 범위 확대
- 이해관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경영공시 강화

■ 전사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윤리의식 제고 노력

- 윤리경영 브랜드 선정 : CLEAN KO-COAL
- 윤리실천다짐대회 개최('05.6, '07.8)
 - 임직원의 청렴 서약, 노조와 협력사의 상생 서약 및 다짐
- 의식교육 강화
 - 관리직원(350여 명)의 사이버교육과정 전원 이수('05~'07)
 - 생산직원을 위한 광업소 현장 순회교육 실시('07.12)

- 부패방지 윤리 초청특강 매년 실시(본사 2회, 광업소 1회)
- 신입직원 윤리교육 및 행동강령 교육 실시(입사시)
- 국가청렴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온·오프라인 교육 참여 확대
-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 사보 기고문 게재(분기별) : 윤리경영 대외흐름 및 제도 소개
 - “청렴도 측정의 이해”(‘07.2), “지속가능경영의 이해”(‘07.4), “공기업 오무즈만의 이해”(‘07.6), “부패영향 평가제도란”(‘07.8), “2007 윤리경영의 추진성과와 그 과제”(‘07.12) 등
 - 표어 및 사행시 공모(‘06.9)
 - “바로세운 기업윤리 기업발전 초석된다” 외 3편 당선
 - 슬로건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06.7)
 - “3초의 윤리진단, 30년의 행복시작” 외 3편 당선
 - 건전한 명절보내기 캠페인 전개(매년 설·추석)
 - 선물반송센터 운영 등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전개
 - 고객사 및 협력사 협조서한 발송
- 『기업윤리규정』 발간 및 배포

■ 모니터링과 피드백

- 청렴도 측정(‘06.1, ‘07.1)
 - 간부청렴도 대상자 확대 시행
 - 내부업무 청렴도 조사 실시 후 취약 분야 특별교육 실시
- 윤리의식 수준진단 설문조사 실시(연초)
- 내부평가 지표 운영
 - 상임이사·광업소장·부서별 평가 등 실적 및 참여도 가중치 상향조정
- 내부직원 전화인터뷰로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
- 부패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및 감찰 강화
 - 부패영향평가제 시행(‘07.11)
 - 주요 사업의 수립단계에서 부패정도 사전 진단
 - 『건설공사청렴이행매뉴얼』 제정(‘07.10)
 - 일상감사업무 확대,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이행실태 수시 점검 등
- 윤리경영 자가진단시스템 운영

■ 나눔경영 구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실시

● (사)사랑의연탄나눔운동본부 후원

- 한국의 근대화의 주역이라는 석탄산업에 대한 자부심으로 2004년 6월 전 임직원 1인 1후원계좌(100장) 갖기 운동을 시작으로 '05년 7,000만원, '06년 5,000만원, '07년 1,000만원 지원
- 북한을 비롯한 지역에 나무심기 및 연탄배달 등 행사 동참
- 남북한 연탄지원누계 1,000만장 돌파('07.2)

● Love-Coal 봉사단 활동

- 석공사회봉사단 설립('05.10)
- 테마 프로그램 활동 내용

테 마	내 용
지역사랑	▪ 광업소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시행 '05년 75,840장, '06년 86,500장, '07년 42,700장 지원 ▪ 지역주민에 공사 시설물 무료개방 (세탁시설, 도서관, 테니스장, 족구장, 버스차량, 목욕탕 등) ▪ 독거노인 헌집 보수작업 ▪ 공부방·마을회관·의경중대 등 위로 및 생필품 지원 ▪ 지역 자율 방법활동
성금모금	▪ 1부서(인) 1결연 ▪ 불우이웃돕기, 국군장병위문 ▪ 바자회 개최
자연보호	▪ 태안 기름유출 현장방문 자원봉사 ▪ 광업소별 1사 1하천 가꾸기 ▪ 광업소 인근지역 정기적 청소
탄돌이 PRIDE	▪ 진폐환자 방문 위로 및 성금 후원
장학사업	▪ 산학협력 지역 대학 후원 및 인재육성 ▪ 꿈나무 도서기증(초등학교 도서관 지원) ▪ 지역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 환경적 책임 이행을 위한 노력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

-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친환경 신사업 연구
 - 폐플라스틱과 국내무연탄을 혼합, 가스화하여 청정에너지 성형
- 기타 청정에너지 시추 및 개발 추진 중

● 광해방지 사업

- 수질오염 방지 : 폐수정화, 폐유처리, 배수관 투자
- 대기오염 방지 : 집진기 설치, 운탄도로 포장, 저탄장 복포작업 등

《윤리경영 추진 성과》

- 에너지절약 최우수 정부투자기관 선정('05)
- 한국경제신문사 주최 산업안전경영대상 수상('06)
- 정부주관 공기업 부문 고객만족도 상승 83점('05)→85점('06)
- 윤리의식 수준진단 설문조사 결과 윤리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 상승 85.8%('06)→97.3%('07)

《향후 추진 계획》

-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및 보고서 발간
- Help Line 운영
- Clean Letter 사내 공모 실시
- 윤리경영 교육 대상의 확대 및 직무·직급별 차별화

III. 국내 윤리경영 동향

【 기업 관련 】

◎ 벤처기업협회, '벤처 윤리경영 인증 기업' 선정(1.31)

- 벤처기업협회는 국내 최초로 비트컴퓨터, 우림인포텍, 안철수연구소, 파크시스템즈, 픽셀플러스, 쏘리테크, 삼광정밀, 자을소프트, 이수유비케어 등 9개사를 '벤처 윤리경영 인증 기업'으로 선정하였음
- 윤리경영 인증을 위한 평가는 모두 10개 항목(이해관계자 파악 및 참여,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와 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도,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효율성, 종업원 관리,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및 안전, 환경, CEO의 윤리경영 의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총 49개 소항목으로 구성된 평가지표를 통해 이루어졌음
- 벤처기업협회는 벤처윤리경영인증 기업명단을 정부, 기업평가기관, 대기업 상생협력팀 등에 통보하여 정부 포상을 받거나, 기업 신용평가를 받을 때 우대(인센티브)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

◎ 한국소방검정공사, 청렴·윤리경영 교육실시(2.4)

- 금번 교육에서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배포한 '공직자 행동강령' 영상물 시청을 통해 청렴·윤리경영의 근간인 행동강령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윤리딜레마 상황에서의 공정한 직무수행 가이드라인에 대해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음
- 한국소방검정공사는 2008년도에 윤리경영 전문가 초빙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예정이며, 다각적인 자체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클린경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

◎ 한국전력, 유엔글로벌콤팩트 우수보고서 기업으로 선정(2.12)

- 한국전력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한국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UN Global Compact ‘우수보고서(Notable COP)’로 선정되었음
 -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한 단체들은 매년 Global Compact 10대 원칙 준수에 대한 보고서(COP : Communication On Progress)를 발간해야 하는데, 특히 2004년부터는 Global Compact 사무국이 세계 4,000여 개 기업의 COP를 심사하여 우수보고서(Notable COP)를 선정하고 있음
 -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주로 선진국의 COP가 우수보고서로 선정되고 있으며, 2007년에는 한국전력을 포함한 57개 기업의 보고서가 우수보고서로 선정되었음
- 한국전력은 한국 기업 최초로 2005년 8월에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였고, 이후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음

◎ 한진중공업, ‘윤리경영 선포식’ 개최(2.14)

- 한진중공업은 건설 부문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 다짐 행사를 개최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윤리경영 실천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선포하였음
 - 한진중공업은 앞으로 전 그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의식 고취와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다지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윤리경영이 그룹의 필수 경영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방침

◎ 참여연대, 노동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지표 발표(2.18)

- 참여연대는 노동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발표하였음

- 이번에 제시한 노동분야 지표는 가족친화적 기업, 높은 삶의 질 제공 기업, 차별없는 직장, 양질의 고용창출, 사람투자·존중 기업, 법·인권 준수기업,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 건전한 노사관계, 노동참여 기업, 지역사회를 배려하는 기업 등 10개 분야 50개 지표로 이루어졌음
- 동 지표에는 사람투자·존중 기업 분야에 노동자 1인당 교육시간 확대, 노동자 1인당 교육훈련 비용의 증액, 전직훈련 프로그램, 종업원의견 청취를 위한 프로그램, 경영지침에 종업원 존중 명문화 등의 지표가 포함되는 등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현안들이 망라되어 있음
- 참여연대는 향후 동 지표를 보완한 후 이를 기업들에게 적용해 노동사회책임 이행 정도를 평가·점검하는 한편, 그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

◎ 한국제약협회, 윤리경영 협조 서신 발송(2.19)

- 한국제약협회는 전국의 병원장들에게 제약 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사업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였음
- 서신에는, 제약업계가 지난해 5월부터 의약품 거래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경영을 추진하는 등 자정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전국 병원도 자정 노력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음
- 제약협회는 또한 병원들이 제약사에게 거래와 관련된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 공정거래규약을 벗어난 국내외 학회 지원, 보건의료단체 행사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 대한상공회의소, '2007 하반기 기업호감도' 조사 결과 발표(2.19)

- 대한상공회의소는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전국 20세 이상 성인 2,035명을 대상으로 '2007 하반기 기업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기업호감도지수(CFI : Corporate Favorite Index)가 100점 만점에 46.6점을 기록해 평균점인 50점을 밑돈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2003년 하반기 첫 조사 때 38.2점이었던 CFI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6년 하반기 50.2점으로 처음 50점을 넘었으나, 2007년 상반기 48.1점으로 하락한 후 2007년 하반기에도 악화돼 2분기 연속 하락하였음
- CFI는 기업경쟁력, 생산성, 국가경제 기여도,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5대 요소에 걸쳐 응답자들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100점에 가까울수록 호감도가 높음을, 0점에 가까울수록 호감도가 낮음을 의미함
- 조사 대상자들은 기업에 대해 호감이 가지 않는 이유로 '분식회계 등 비윤리경영'(37.3%)과 '경영권 세습 등 족벌경영'(20.9%), '근로자 희생강요'(13.7%) 등을 주로 꼽은 반면, 기업에 호감을 갖는 이유로는 '국가경제 기여'(46.4%)와 '일자리 제공'(25.1%), '국위선양'(17.6%) 등을 들었음

【 정부 관련 】

◎ 공정거래위원회, '두레넷'(10개 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의 '07년 각 부처별 추진성과 및 '08년 추진 계획 발표(1.31)

- '두레넷'은 '06년도에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질서 정착을 위하여 범정부 정책공조체제('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서 현재 재경부, 산자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 공정위가 하도급법 상습 범위반 업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명단을 관련 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는 이를 소관 정책에 반영하여 불이익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07년 추진 성과

- 하도급 모범업체에 대한 혜택
 - 재경부 : 신용등급 상향조정, 대출금리 0.3% 인하, 운영자금 지원확대
 - 건교부 : 시공능력 평가 시 또는 대형공사 발주 시 우대
 - 조달청 : 정부조달 입찰심사 시 1점 가점 부여 등
-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불이익 부과
 - 재경부 : 신용등급 하향조정 또는 대출금리 인상(산은·기은), 보증지원 시 신용등급 하향조정(보증수수료 약 0.2% 상승, 신보·기보)
 - 중기청 :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심사 시 2점 감점
 - 조달청 : 정부조달 입찰심사 시 2점 감점
 - 과기부 : 'IR52장영실상' 수상 대상에서 제외 등

— '08년 추진계획

- '07년 기존과제(10개)는 '08년에도 지속 추진
 - 재경부 : 국책금융기관 자금지원 시 하도급 불공정 여부 반영
 - 금감원 : 민간금융기관의 기업신용평가 시 하도급 불공정 여부 반영
 - 조달청 : 정부조달(물품구매) 입찰심사 시 가·감점 부여 등
- 신규과제(4개) 적극 추진
 - 과기부 : 국가 R&D 과제 선정·평가 시 상습위반업체에 감점 부여
 - 산자부 : 대·중소기업협력자금 지원 대상에서 상습위반업체 제외
 - 정통부 : 공공정보화사업 하도급 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제 도입
 - 조달청 : 정부조달(시설공사) 입찰심사 시 가·감점 부여. 등

◎ 산업자원부·환경부, '2008 국가환경경영대상' 정부포상 실시 계획발표(02.11)

- 산업자원부와 환경부는 기업의 환경경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우수 환경경영을 수행한 기업 및 유공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2008 국가환경경영대상' 정부 포상을 6월 초에 실시할 계획
- 국가환경경영대상은 환경경영 분야의 대표적 정부포상으로,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기업의 환경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속가능 산업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왔음
- 포상 부문은 기업체 부문, 제품 부문, 단체 부문 및 유공자 부문으로 구분하며, 기업체 부문은 종합대상, 전문대상 및 전문상(환경경영시스템, 청정생산, 기후변화대응, 환경서비스,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환경산업수출진흥)으로 구분하여 시상할 계획
- 특히, 이번 포상에는 기후변화대응상을 신설하여,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뿐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 또는 공정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도 포상할 예정

◎ 산업자원부, '탄소중립(Carbon Neutral) 프로그램' 실시(2.18)

- 산업자원부는 제3차 기후변화 Week(2.18~22일)를 맞아 전 지구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 대해 다양한 행사와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국내 최초로 '탄소중립(Carbon Neutral)' 캠페인을 실시하여 기후변화 Week내 전 행사를 탄소중립으로 진행하였음
- 기후변화 Week는 교토의정서 발효('05.2.16)를 계기로 시작되어 매년 개최되는 것으로, 이번 Week은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 대한상의, 관련 기업 등 산업계와, 환경재단, 소비자시민모임, 에너지시민연대, 주부교실중앙회 등 시민단체뿐 아니라 울산, 광주, 충북 등 지자체를 포함, 총 21개 기관이 참여하였음

- 탄소 중립 캠페인은 일반, 기업 등이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요 온실가스중의 하나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노력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임
- ‘탄소중립 프로그램’이란 각종 행사 개최, 여행 등 다양한 활동과 생활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측정·확인한 후, 일차적으로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 실행하는 한편,
- 행사후에 불가피하게 발생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감축사업 시행기관의 공인된 감축실적을 구매하거나, 신재생에너지 투자, 숲가꾸기 및 나무심기(이산화탄소 흡수원)에의 기부 등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상쇄하여 전체 발생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0’으로 하는 것임

※ 해외 탄소중립 프로그램 활용 사례

- 기업은 감축목표를 스스로 수립하여 미달되는 감축량에 대해서는 추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구매하여 목표물량을 충족함. 기업은 감축량 강제할당 이전이라도 이러한 노력을 홍보하여 기업 이미지 제고에 활용
- 정치인, 연예인 등은 선거운동, 공연, 차량이동 등에 동 프로그램 활용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결과 발표(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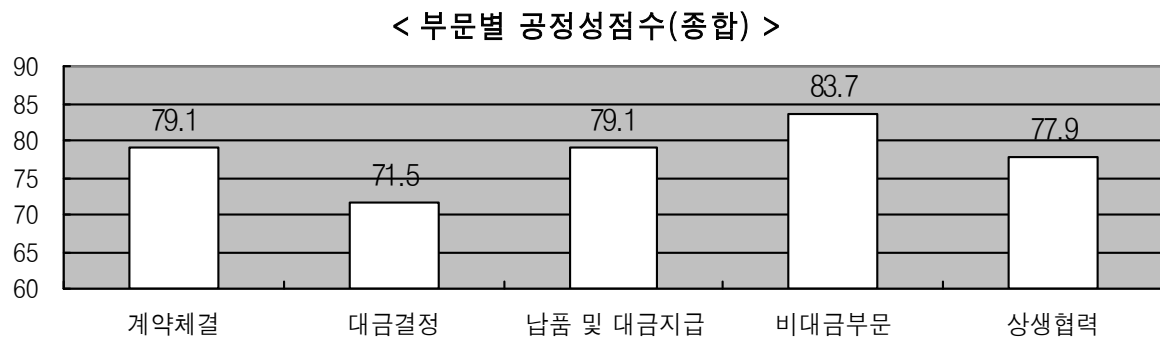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하도급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전자, 완성차, 건설업종 등 3개 업종(21개 대기업)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음

○ 공정성 평가는 비계량 평가(70%)와 계량 평가(30%) 방법으로 구성

- 비계량 평가 : 중소수급업체를 상대로 ① 계약체결 ② 하도급 대금결정 ③ 납품 및 대금지급 ④ 비대금(非代金) ⑤ 상생협력(윤리경영) 등 5개 부문 설문조사 실시

- 계량 평가 : 피평가 대기업별로 하도급법 준수실적(20%)과 하도급대금 현금성결제비율(10%)을 반영하여 평가

- 평가 결과 '비대금 부문'의 공정성 점수가 가장 높았고, '하도급 대금결정' 부문의 공정성 점수가 가장 낮았음



- 금품 향응 및 이익제공 강요, 신고에 따른 보복 조치, 탈법행위 등과 관련된 '비대금 부문'의 공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원자재 가격 상승, 임금인상, 환율 하락 등 대기업 경영 사정에 따른 일방적 단가 인하로 '하도급 대금결정' 부문의 공정성은 상대적으로 저조

※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 애로 실태 조사에서도 대기업과의 부당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 중 47.4%가 대기업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평가에 이어 앞으로도 공정성평가를 지속적으로 보완·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평가 결과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별점 감점 혜택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스스로 거래의 공정성을 높여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